

시설청소년을 위한 퇴소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

-사회적응 및 건강가정형성을 중심으로-

강복정 (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)

본 연구의 목적은 퇴소대상 시설청소년(고등학교 1, 2, 3학년)들을 대상으로,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올바른 자기 이해를 돕고 나아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. 따라서 이들이 남은 시설생활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자아성찰 및 사회적응을 위한 퇴소준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지도하는 한편, 미래가정생활을 위한 예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질함양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.

그러므로, 본 연구는 본 연구에 앞서 연구자가 5년 간에 걸쳐 개발한 교육프로그램(시설청소년 및 시설출신자의 요구도와 건강가족의 특성, 시설청소년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미흡한 시설청소년의 가치관교육·진로교육·생활지도교육·미래가정형성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포함한 프로그램)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.

연구대상은 서울시내의 S보육원에서 생활하는 고등학교 1,2,3학년 실험집단 8명과 통제집단 8명을 선정하여, 2001년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, 3월 31일까지 추후관리를 지속하였다. 프로그램진행은 강의, 심리검사, 성격검사, 동작활동,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, 프로그램의 효과측정은 사전·사후검사 점수를 이용하여 통계분석방법인 ANCOVA로 처리한 양적평가와 프로그램 직후면접과 1개월 후 추후면접을 통한 질적평가로 이루어졌다.

시설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가정형성을 위한 퇴소준비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첫째, 퇴소준비교육프로그램은 자아정체감, 심리적복지감, 대인관계변화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. 둘째, 퇴소준비교육프로그램은 시설청소년들의 자기이해 및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. 시설청소년들에게 있어 자기이해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자신의 성격, 양육환경, 근원가족 등임을 깨닫게 한 것이며, 대부분이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. 프로그램 종료 1개월 후 추후면접은 시설청소년의 생활태도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. 셋째, 퇴소준비교육프로그램은 시설청소년들이 퇴소 후 사회적응 및 가정형성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. 그러나, 퇴소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청소년들일수록 거쳐결정 및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.